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2월호
2020년

2020 HAPPY NEW YEAR!



한인회 코너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민명희

뉴멕시코한인회 회장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과 평안함이 가득한 가정 되시고 건강하신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한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다녀온 일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재외동포가 함께 하겠습니다”란 주제로 활기차고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열렸던 전 세계 한인회장 모임이 한인회 내실화를 도모하고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제13회 세계한인의 날(10월5일)’ 기념식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주최, 외교부 (장관, 강경화) 후원으로 작년 10월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히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박원우 중국한국인회 회장과 강인희 러시아/ CIS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80여 개국 한인회장 400여 명과 국내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주요내용 CONTENTS

- 한인회 코너 | 뉴멕시코한인여러분!! 민명희 : 1
- 한인회 | 교민여러분|문상귀/김완중 총영사 뉴멕시코 예방 : 2
- 한인회소식 | 풀뿌리 운동 및 정기총회/한국학교예술대회: 3
- 지역소식 | 코윈소식|박광종: 4
- 한인회 소식 | 김치축제 성황리에 마쳐 : 5
- 지역소식 | 보잉의 우주선/화이트샌즈 국립공원 :6
- 지역소식 | 색다른 30마일 제한/ART 버스운행시작 :7
- 지역소식 | 한인2세의 기업체 상받아/정윤지씨 박사학위 : 8
- 지역소식 | 고 양익환 선생의 장례식 : 9
- 지역소식 | 알버커키 공항의 미술작품: 10
- 지역소식 | 뉴멕시코의 소나무/미야무라 씨 뉴욕에 초청: 11
- 시/엣세이 | 성탄절 아침/한국이 통일하면 | 임찬순/김의련 :12
- 인삿말 | 새해를 맞으며|김재태/하나님의 나라가 |김민순 : 13
- 수필 | 산책길의 경관 |이정길: 15
- 칼럼 | 최고의 해 2019 | 김기천 : 16
- 수필 | 단순한것을 깊게 감사하는것의 중요성 | 한승우 : 17
- 영어상식시리즈 | 영어이야기(6) | 이상목 :18
- 건강상식 | 치과 이야기(7) 충치치료와 예방법 | 윤자정:19
- 수필 | 조건 없는 사랑 |김광철 :21
- 선교 | 하나님의 선교사 재배치 사역 |이성일 :22
- 생활지식 | 신비한 도자기 그릇|김준호:23

한인회 소식

참석했습니다.

대회 첫날인 2일에는 지역별 참가자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단체 간 교류 마당'과 함께 법률클럽의 기조 강연 후, 개회식 및 환영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3일에는 중국한국인회, 필리핀 중부루손한인회, 뉴질랜드 오클랜드한인회,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캐나다 캘거리한인회 등 5개 한인회가 '한인회 모범 운영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 날에도 '재외국민 선거 관심과 참여도 증진을 위한 방안'이란 공통 주제와 지역별 주제를 가지고 지역별 현안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4일에는 행정안전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정부와의 대화'에 이어 서울시장 주최 오찬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별 현안 토론 결과 발표와 결의문 채택 등 전체 회의 후 오후6시에 폐회식 및 환송 만찬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한인회장, 유공 동포, 국내 초청 인사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세계한인의 날(10월5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한우성 이사장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재외 동포사회의 단합과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재외 동포사회와 함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뉴멕시코주 한인회도 세계한인회와 나란히 어깨를 대고 한인 이민 사회가 미주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격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인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로 주류사회 단체와 관계를 갖고 정보를 교환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포사회를 위한 이익단체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을 뚜렷이 갖고 한인회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공유하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 지역 사회에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민족의 정서를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관하려면 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봉사자도 요구됩니다.

더욱 건강한 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한인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일 년 동안 저희 뉴멕시코주 동포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영사업무와 이곳 동포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구태훈 영사님, 이종미 영사님, 양상규 영사님, 이종돈 영사님, 김수연 영사님, 권용석 영사관 업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뉴멕시코주 교민 여러분



17대 뉴멕시코 전 한인회장
문상귀

뉴멕시코주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소리 지면에 꼭 일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민 여러분께 지면을 할애하여 밝혀 드리고자 함은 다음아닌 17대와 18대 한인회의 인수인계에 관련사항입니다. 18대 한인회장 이, 취임식에서도 밝혀 드렸듯이 인수인계는 2019년 1월 12일에 한인회관에서 현 회장단에게 한인회, 한국학교, 어버이회, 선거 관리위원회에 이르는 모든 서류와 은행 명의 이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인수인계 당시 참석자는 18대 한인 회장단(민명희, 정대식, 함은경, 마명순) 17대 한인 회장단(문상귀, 윤태자, 이영혜) 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위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

김완중 총영사, 뉴멕시코주 교육부 관계자 예방 및 평화의 사도 메달 전수

김완중 총영사가 지난 12월12일 뉴멕시코주 교육부 Danielle Gothie 교원개발실장과 Anthony Burns 자료개발국장을 예방하고 뉴멕시코 사회교과서 내 한국역사 기술 확대 관련 협의 논의하기 위해 뉴멕시코를 방문하여 이와 함께 12일 저녁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뉴멕시코 한인회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완중 총영사는 작년 3월 이후 첫 방문이라며 그동안 한국 국내외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과 총영사관의 업무를 전하며 내실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이번 방문은 뉴멕시코 주 교과서에 한국전에 참전한 뉴멕시코 참전 용사들의 업적을 신기 위해 방문했음을 말하며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현대사적 의미에서 되새기며 이를 통해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국계 입양아들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4월 총선에 참여하며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묵묵히 조국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노력하는 한인회와 그에 속한 한인 어버이회, 한국학교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마쳤다. 이후 간담회 자리에서는 김완중 총영사가 한국학교를 비롯한 기관의 보고를 받았으며 시정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민명희 한인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한인회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를 한 것에 깊이 감사하며 또한 전년에 보고된 내용들을 기억하고 시정된 부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의미있는 만남이었음을 전했다.

김완중 총영사는 이튿날 뉴멕시코 Truth or Consequence 를 방문하셔서 그 지역에 계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Ambassador for Peace Medal)을 증정하고 가셨다. ■

한인회 소식

제 2회 풀뿌리 운동 세미나 및 정기 총회

신동완

New Mexico Tech 교수
한인회 한국학교담당 부회장



지난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앨버커키 메리어트 피라미드 호텔 (Albuquerque Marriot Pyramid North)에서 제2회 풀뿌리 운동 세미나와 뉴멕시코 한인회 정기 총회가 있었다.

풀뿌리 운동은 미주 한인들이 힘을 결집해 주류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을 위한 행사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전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풀뿌리 운동 세미나는 LA 총영사관에서 오신 이영미 영사의 축사와 함께 시작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뉴멕시코 공대 (New Mexico Tech)에 재직 중인 류영복 교수의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류영복 교수는 뉴멕시코 공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뉴멕시코 주요 산업, 연구 개발 투자, 기술 특허 현황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발표 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 다음 발표는 LA 총영사관에서 오신 김수연 영사의 대한민국 유권자 등록 안내였다. 김수연 영사는 2020년 4월 한국에서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해 발표를 했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LA 총영사관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을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은 2019년 11월 17일 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s://bit.ly/2sxxw32x>)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발표는 신동완 한인회 부회장의 미주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 and 미국 센서스 등록 안내였다. 미주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는 매년 7월 워싱턴 DC 에서 열리며,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는데, 뉴멕시코 한인회에서는 2020년 미주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에 관심있는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휴식 후 2부에서는 뉴멕시코 한인회 정기 총회가 있었다. 민명희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총회에서는 2019년 사업들을 돌아 보는

업무 결산 보고가 있었다. 회장 취임식부터 정월대보름 잔치, 삼일절 기념, 종전 기념, 민속 공연, 한가위 잔치, 그리고 김치 축제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된 여러 사업들과 관련된 사진들을 담은 동영상 발표와 함께 민명희 회장의 소감 발표가 있었고, 함은경 한인회 재무, 김숙희 어버이회 재무, 그리고 마명순 한국학교 재무의 2019년 결산 보고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민명희 회장이 2020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소개된 2020년 주요 사업으로는 19대 한인회장 선거,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그리고 어버이회 효도관광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토의 시간에서는 이사회 정관개정과 어버이회 안건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총회 후에는 만찬이 이어졌다. 조영랑, 최희수 한인회 이사의 후원으로 준비된 와인으로 축배를 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조규자 전한인회장과 민명희 회장이 준비한 선물을 어버이회 회원들에게 드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한 해 한인회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패와 선물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다. ■

뉴멕시코 한국학교 제2회 통일기원 문화 예술 대회 개최

박영신

뉴멕시코한국학교 교장



뉴멕시코 한국학교(교장 박영신)는 지난 12월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뉴멕시코 지회와 뉴멕시코 한인회가 후원하여 통일기원 문화 예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 행사를 위해 전 한인회 회장이자 민주평통 뉴멕시코 지회장을 맡은 조규자씨는 우리 차세대들이 가슴 아픈 분단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라며 \$1,500을 후원하였고 조규자 전 회장과 민명희 한인회 회장, 신동완 한국학교 담당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초청된 심사위원들로부

터 총 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과 상장이 전달되었으며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는 푸짐한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심사평에서 신동완 교수는 이곳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 다소 어려운 주제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깊이 이해하고 잘 표현한 것에 매우 감동했으며



이를 위해 지도에 힘쓴 한국학교 교사진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입상자 선정의 어려움이 많았음을 전했다. 또한 조규자 전 회장도 입상자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모든 아이가 열심히 임해 주었다며 5명으로 계획했던 입상자를 7명으로 늘린 이야기를 전하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훌륭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한편 프리스쿨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23명의 한국학교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최우수상에는 “한국이 통일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5학년 김의련 군이 입상하였다. (12페이지에 김의련 군의 글이 올려져 있음) ■



코윈(KOWIN) 소식

박광종

뉴멕시코KOWIN지회장



코윈 뉴멕시코지회는 올해동안, 타주에서 오는 암환자들의 가족들을 위한 저녁식사대접과, 한인어머니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했다. 암환자들의 가족들은 간호로 힘들고 지친 심신에 따뜻한 저녁식사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어 너무나 감사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한국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코윈이 하는 한국음식이 그리워진다는 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 스태프 분들이 있을만큼 한국음식들을 좋아하신다. 코윈에서는 올해 안식년을 한국에서 마치고 시차적응도 못한 코윈 부회장님이자 New Mexico Highlands University에서 교육대학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선숙박사님과 Cottonwood Classical Preparatory School에서 수학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이경진선생님, Eisenhower Middle School에서 수학선생님이신 한은영선생님을 모시고 2019 KOWIN 교육세미나도 가졌다. 이곳에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독서교육은 어떻게 해야될 지 중학교에 보내기전에 어떻게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할 지 전반적인 중학교생활과 필요한 정보를 강의해주셨다. 다과와 함께 질의응답시간도 있었고 부모님들끼리 대화의 기회도 가지게 되어서 뜻깊은 세미나였다. 김치축제에서 매듭만들기, 김치체험해보기, 전통매듭만들기를 통해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 한국 문화체험의 장을

열었다. 김치바자회에서는 20박스나 되는 배추와 무를 이 추운 날씨에 가정폭력으로 집이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김치를 담가 팔기도 했다. 아무 불평도 없이 파스와 허리보호대를 둘러가며 코윈 회원님들은 김치 하나하나를 만들었다. 웃음꽃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 많은 김치를 담그는 회원님들의 모습은 어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웠다. 코윈회원이 아닌데도 뜻깊은 일이라며 김치담그는데 동참한 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했고 김치를 사주심으로 좋은 일에 참석해주신 지역주민들에게도 감사했다.

방학하면서 코윈은 한국사랑이라는 주제를 걸고 한국의 미와 한국의 우수성을 염서로 표현해보는 기회를 차세대들과 함께 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생각해보고 한국의 전통문양도 배워보고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한국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결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황금돼지해였던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은 하얀쥐띠해이다. 예로부터 쥐는 지혜와 총명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리고 흰쥐는 우두머리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자년의 경은 하얀색이며 밝고 큰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자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회복을 뜻한다.



2020년의 해 뜻을 풀이하면 내공을 크게 쌓아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해이다. 2019년 황금돼지해에도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돕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코윈 뉴멕시코지회는 다가오는 2020년에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문화와 한국의 미를 알릴 기회를 가지며 차세대를 위해 한국문화를 가르칠 기회를 구상중이다. 2020년 새해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두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모든 어려움에도 뒤같이 지혜와 총명함으로 대처하며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해를 기원한다. ■

김치 축제 성황리에 마쳐

김치로 하나되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우리 뉴멕시코에서도 12년 전통을 자랑하는 김치 축제는 한 민족에 열이 담겨있고 수 천년의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김치는 곧 우리나라의 품격이며 우리의 자부심이며 김치는 인류가 만든 음식 가운데 단연코 으뜸입니다.

올해의 김치 축제는 11월16일 Albuquerque Garden Center 에서 열렸습니다. 기획하면서 이 행사는 우리 한국을 주류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기적인 회의 및 실질적인 안전검토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로 발전하여 뉴멕시코 김치 축제가 세계인의 축제로 성장해 나가길 꿈 꾸었습니다. 첫 단계로 장소를 한인회관 밖으로 정하고 무엇보다 편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외로 더 많은 뉴멕시코 시민들이 찾아주셨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개막식 행사에는 사회자 백규식 장노님의 소개로 Tim Keller 알버커키 시장을 대표해서 Allen Armijo 축사를 시작되었으며 축하 공연에 이희정 무용단장님의 춤으로 축제 분위기를 사로 잡았고 한국학교 아이들의 난타 연주 또한 참석한 많은 분들의 흥을 돋구었습니다. 중간중간 사회자가 참석인들에게 던진

퀴즈는 남녀 노소와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 상품과 함께 자리로 돌아가며 행복해하는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KOWIN booth 에서 가족 김치 버무리기 체험과 부채위에 묵화 그림 그리기 또한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마냥 기뻐했습니다. 김치 판매코너에는 여러 종류의 나물로 준비된 비빔밥과 함께 김치를 먹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모두 판매가 매진 되었습니다.

이번 김치 축제는 김치를 세계화를 통해서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즐기고 싶은 축제로 만들기 위한 첫 발돋움 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치 축제 시작 후 최상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해주신 시민들로 행사가 대박이었습니다.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임원진과 이사님들과 지인분들께 감사 표현을 드립니다. ■



보잉의 우주선 스타라이너 화이트샌즈에 귀환성공

우주왕복선 사용이 종료된 후 우주인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을 왕복할 수 있는 유인 우주선 개발을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보잉(Boeing)과 스페이스엑스(SpaceX)와 계약을 맺고 '유인 캡슐 발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보잉은 우주선으로 유인 캡슐 'CST-100 스타라이너'를 개발하여 첫 시험비행을 위해 지난 12월 20일 ULA(United Launch Alliance)의 '아틀라스 V' 로켓에 탑재 시켜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네버럴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 그러나 타이머 문제로 발사 이후에 추진체가 계획한 시점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상 궤도 진입을 포기하게 됐다. 따라서 계획한 우주정거장(ISS)과의 도킹도 무산됐다. 그러나 유인 캡슐 'CST-100 스타라이너'는 저궤도를 회전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정보다 여섯 앞당긴 22일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다. 스타라이너는 뉴멕시코시간으로 새벽 5시 58분에 6개의 에어백과 3개의 대형 낙하산에 의존해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미사일 발사 시험장의 낙하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터치다운했다. 착륙과정은 착륙시간 35분 전 태평양 상공에서 우주선 서비스 모듈을 분리하는 데서 시작하여 대기권 재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화씨 3000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에서 잘 견디어 냈고 뉴멕시코 상공에 들어선 착륙 전 6분경에는 속도역시 30마하의 고속에서 음속에 가까운 저속도로 낮추어진 후 열차단 벽부분을 분리시키고 3개의 낙하산이 펼쳐지고 6개의 에어백이 터지는 과정을 차례대로 시행하여 미국 최초의 유인 캡슐의 지상 귀환에 성공한 것이다.



궤도시험비행을 마친 스타라이너는 플로리다로 보내진다. 재정비를 거쳐 다음에 있을 미션에 재사용된다. 이제부터 뉴멕시코의 화이트샌즈는 스타라이너의 귀환 우주 공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주왕복선 사용 중지된 이후 지난 9년 동안 미국은 유인우주선이 없어서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을 빌려서 좌석당 8천만불의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ISS(우주정거장)에 우주비행사들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유인 우주선 개발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스타라이너는 최대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7개월간 지구 저궤도에 머무를 수 있으며, 10번까지 재사용이

드디어 화이트샌즈 국립공원으로 승격

뉴멕시코의 두 번째 국립공원이 탄생했다. 지난 2019년 12월 20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2020 회계 연도에 대한 국방 승인 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했는데 이 법안에는 화이트 샌즈 모뉴먼트를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White Sands National Park)으로 승격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미국에서 62번째로 지정된 국립 공원으로 뉴멕시코주의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이 된 것이다.

“이곳 공원 관리 직원들은 화이트 샌즈가 국립 공원으로 승격된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 관리자인 Marie Sauter씨는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공원이 승격되도록 노력해준 파트너와 지역 사회 및 의회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고 말했다.

화이트 샌즈 모뉴먼트는 1933년 1월 18일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 의해 이곳 흰 모래의 경치와 관련된 과학 및 교육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오늘에 와서 국립공원으로의 재지정된 것은 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것을 인정한 결과이다. 이 공원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고 모래언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빙하기 화석 발자국이 있으며 10,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있는 곳이다.



자세한 공원에 관한 자료는 홈페이지 www.nps.gov/whsa 에서 얻을 수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에서도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광야의 소리 지난 2019년 11/12월호에서도 관련 기사,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나?”에서 공원소개를 했다.

자료출처: NPS.gov/Park Home/Learn About the Park/News/ News Releases 2019-12-21 “National Monument Re-designated as White Sands National Park ■

가능하다.

보잉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스페이스 X는 지난 2019년 3월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유인 캡슐 ‘크루 드래곤’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고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여 5일간 지구를 돈 다음 대서양에 착수하는 궤도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그 후 지상 시험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모듈이 유실되고 계획에 차질을 빚고있다. ■

지역사회

드디어ARTBUS운행시작

5년이란 시간과 1억 3천 5백만 달러의 비용의 결과로 알버커키시는 마침내 센트랄가에 ART(Albuquerque Rapid Transit) 버스 운영을 지난 11월30일 시작했다. 버스 노선은 언서(Unser)에서 트램웨이(Tramway)구간과 언서와 엠타운사이를 연결하는 두 개 노선이다.

두 개의 ART노선의 운행 시간은 오전 5시 45분, 종점에서 출발하여 밤 10시까지 (월요일-목요일) 운행하며, 토요일은 밤 11시까지, 일요일은 아침 6시15분부터 저녁 7시까지 운행한다.

모두 20대의 ART 버스가 두개의 버스노선, 즉 적색 노선과 녹색 노선을 운행한다. 노선 # 777은 녹색노선(ART Green Line)인데Unser 종점에서 Central을 달려서 Tramway 종점까지 간다.

노선 # 766은 적색 노선(ART Red Line)인데 Unser Transit Center 종점에서 시작, Central을 타고 Louisiana까지 온 다음 북쪽을 향하여 Uptown Transit Center까지 운행한다.

버스의 운행간격은 Central에서는 7~8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니며Louisiana와 Uptown 사이에서는 15분 간격이 된다고 한다.

버스 요금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1이며 학생과 62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는 35센트이다. UNM/CNM버스 Free 패스와 여러종류의 패스가 있는데 요금이나 패스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cabq.gov/transit에서 알아 볼 수 있다.

ART 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일반 차량으로 Central 가에 운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ART 버스 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ART 버스 전용차선은 겹줄(Double Lines)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차선을 침범하면 교통위반에 걸린다. 좌회전 또는 U-Turn 할 때에는 반드시 신호등 앞에서만 가능한 것도 ART 버스가 운행하는Central가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교통 규칙이다. ■



색다른 30마일 속도 제한 표지판 설치

앨버커키시는 Central 가 남쪽에 있는 One-Way(일방통행) 도로인 Lead와 Coal에서 과속운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앨버커키시의 팀 켈러 (Tim Keller) 시장과 시의회 의원 Pat Davis가 Lead 와 Coal두개의 도로를 따라 17개의 새로 설치하게 되는 도로 표지판 중 하나를 손 수 설치했다.

표지판은 30마일 제한 속도를 넘어서 달리면 신호등에서 빨간 불에 걸리도록 신호등 간에 시차를 조정해 두었기 때문에 과속해도 더 빨리 갈 수 없다는 표지판이다. 새로운 속도제한 표지판은 Washington st. 와 University Blvd. 사이에 설치했으며 이 조치는 도로 주변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불안해 온 것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신년 부흥회

주제말씀: 로마서 12:1

성도의 삶의 자리는
거룩합니다

1월18일(토) 7:00pm

1월19일(일) 11:00am

7:00pm

1월20일(월) 7:00pm



강사

이훈경 목사

현 중북부 선교 감리사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감리교회 18년 시무

군목 시무

감리교 신학대학

Drew University

NY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

담임목사: 김기천 (505) 803-7716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601 Tyler road NE ABQ NM87113

한인 2세의 기업체 샌디아연구소 원자로 기술 이전 상 받아

알버커키에 있는 한인 2세 기업가 Bennett Lee(28) 씨가 창업한 신생 회사, Eden Radioisotopes, LLC 회사가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함께 연방 연구소 컨소시엄(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LC)에서 주는 2019년 기술 이전 상(Technology Transfer Award) 을 수상했다.

PR Newswire의 11월 21일의 보도와 샌디아 연구소 신문인 Lab News 12월 5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에덴-라디오 아이스토프사는 샌디아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전수받아 의료용으로 쓰이는 동위 원소를 만들어 내는 소형 원자로를 건설 하게 된 것은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실용화시킨 성공적인 기술이전 사례로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된 것이다.



FLC에서 발표한바에 따르면 Sandia-Eden 파트너십의 결과로 세계 의료 동위 원소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규모 원자로를 제작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여 2019 년 최우수 기술 이전 상 (Technology Transfer Award) 수상자로 Sandia와Eden Radioisotopes를 선정했다. Eden Radioisotopes의 CEO인 베넷 리 (Bennett Lee) 는 FLC에서 수상 통보 서한을 받고 “권위 있는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했다. Eden Radioisotopes는 Sandia National Laboratories가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전수받아서 의료용 동위 원소, 주로 몰리브덴-99를 생산할 목적으로 원자로를 건설했다. 간단히 말해서 Moly-99로 알려진 이 동위 원소는 Technetium-99m의 중요한 원자재로 핵 의학으로도 알려진 의료 분자 영상(Imaging)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의료 동위 원소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4천만 건의 진료 과정에서 이미징을 얻는 데 사용되며 그중 80 %가 Technetium-99m을 사용하여 심장병, 암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데 이용된다.

동위 원소를 환자의 몸에 주입하면 신체 내에서 동위원소가 감마선을 방출하므로 이를 추적 하여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샌디아 연구소 신문인 Lab News 에서 연구소의 비즈니스 개발 담당자인 Bob Westervelt는 말하기를, “이것은 샌디아



UNM의 정윤지씨 Special Education 분야에서 박사 학위 취득

UNM에서 Special Education을 전공해오신 한국유학생 정윤지 씨가 지난 12월14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졸업후에는 Post Doctoral Fellow로 UNM에서 계속 연구직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위 논문 제목은 ‘Knowledge and Desires of Par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Regarding Inclusive Education Laws and Practices in South Korea: Qualitative Case Study’ 이다.



연구소가 민간 업체에 기술 이전을 성취한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샌디아에서 이 작업을 담당할 팀은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전념을 다 했으며 Eden회사의 팀은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이 기술은 에너지 부 (Department of Energy)에서 목표로 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고 저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Moly-99의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를 달성시켜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에덴동산의 Eden과 방사성동위원소의 Radioisotopes 두 단어로 회사 이름을 지어 6년전에 창업한 베넷리는 커트랜드 공군기지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이원규 씨의 장남이다. 4년전 공군에서 퇴역하여 현재 General Dynamics Missions System 본사에서 Corporate Counsel로 일하고 계시다. 베넷리의 어머니 한윤미씨는 현재 한의사로 일하시며 2008년까지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의 주일학교교사로 남편과 함께 봉사했었다. 두 분 내외는 며느리의 첫 아기 출산을 돕기 위해 알버커키에 내려온 기간에 아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소식도 듣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말했다. 며느리 Esther는 이곳 갈릴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은퇴하신 류종재 목사의 따님이시다. 이 기사를 쓰고 나서 교정을 보는 동안 Emerson 현식 아기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에덴 동산에 주어진 더블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다.(글:편집부) ■



지역사회

고 양익환 선생의 장례식

뉴멕시코 어버이 회 회원이셨고 천주교 공동체의 회원이셨던 양익환 선생께서 향년 90세로 지난 12월 12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교정 씨, 따님으로 양재숙(Diane Kreitinger), 양재화(Lisa Yang), 양재연(Julie Yang), 아드님으로 양재원(Jaewon Yang) 씨가 있다.

장례식은 Wyoming에 있는 French Funerals and Cremations에서 12월 17일 오전 11시 김기천 목사님의 집례로 거행했다. 고인이 미국에 처음 오셔서 천주교회에서 세례받으시기 전에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에서 교회 생활하셨던 연유로 고인께서는 장례식에 관해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김기천 목사님께서 집례하시게 됐다.

장례예배는 예식사에 이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찬송을 다 같이 부른 후 이경화 장로의 기도예 이어 김기천 목사의 설교 “네가 믿느냐?” 제목으로 요한복음 11:25-26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으로 설교하셨다. 김기천 목사는 고인을 기억하는 얘기 속에서 양 선생님께서 부인 안교정씨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신 아름다운 모습을 언급하시면서 우리도 고인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

고인의 양력 소개가 아래와 같이 있었다.

고 양익환 교우는 1929년 3월 20일 경기도 광주에서 부친 양주의 아버지와 모친 신남이 어머니 사이에 외동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7살 되던 해 서울로 이사를 하시고

25살 때에 고인의 현재 아내이신 안교정씨를 만나 결혼을 하셨습니다. 고인은 서울에 있는 동대문 연료 조합에서 40년 정도 성실 하게 일을 하시다가 1988에 미국 Albuquerque로 이민 오셨습니다. 2000년 5월 13일 St. Mary's of the Assumption Church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고인은 이후에도 Albuquerque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고인은 아내와 자식들, 손자와 손녀들을 사랑하셔서 늘 아내를 챙기시며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인은 한인회 노인 분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고, 큰 따님 친구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고인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고인이 평상시 좋아하시던 것들은 군대 이야기, YTN 정치 뉴스, 권투 경기, 흘러간 노래 듣기, 주기도문, 춤추기, 천렵, 카지노, 돈, Extra 껌, 인절미, 술, 고기, 회, 취나물, 냉면, 콩국수, 월남 국수, 설렁탕, 녹두죽, 둘째 딸이 만든요리, 모자, 나비 넥타이, 가족 잠바, 막내딸이 사준 옷들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이 땅에서 살아오시면서 남겨놓으신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유족들에게도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고인이 즐겨 노래하셨던 노래를 손녀 Gloria와 Christine 이 바이올린 2중주로 할아버지께 드리는 노래순서가 있었다. “비 내리는 고모령”, “나그네 슬픔” 두 곡의 연주를 통해서 고인이 미국에서 행복한 삶 속에서도 고향을 잊지 못했던 향수를 조객들도 느낄 수 있었다. 큰따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시”, 헌시 낭독이 감동적이었다. 엄마의 시를 손녀 Kimberly가 영어로 번역해 낭독했다. 추억의 사진 슬라이드를 보는 시간에 이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고 장례식을 마쳤다.

장지는 식당에서 약 1마일 북쪽에 있는 Gate of Heaven Cemetery and Mausoleum이었다. 장지까지 오신 조객과 유족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과 김기천 목사의 영혼위탁 기도예 이어 고인의 시신은 모설리움(Mausoleum)의 Crypt에 안치되었다.

유족측에서는 조객 여러분을 Buffet King식당으로 초대하여 점심을 대접했다. 조객은 오랫동안 안부를 모른체 살아온 교민간에 반가운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식사 시간중에 이루어 졌고 추억속의 고인 얘기로 지난날을 회상하기도 했다. ■



알버커키 공항의 미술작품 국제적 인정 받아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국제공항에 전시된 미술 작품은 어느 미술박물관에 전시된 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보여 주는 전시효과가 있고 항공기 탑승에만 몰두하는 많은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여행의 즐거움도 보태준다. 최근에 와서 많은 국제공항이 미술품을 설치하고 장식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술적으로 장식에 잘된 9개의 국제공항을 미술 계통의 계간지 ArtDesk가 금년 가을호에 소개했다. 여기에 알버커키 Sunport 공항이 포함됐다. 선정된 공항은 싱가포르의 창이, 파리, 암스테르담, 뭄바이,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도하, 알버커키와 뉴욕의 JFK공항 순서로 선정됐다.

선포트 공항의 마케팅 담당자인 스테파니 키츠 (Stephanie Kitts) 씨는 이 잡지가 독특한 뉴멕시코의 미술품 전시와 함께 오래된 자동차(특히 Lowrider)를 공항 내에 전시한 것이 선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공항 내에 1964년도 Chevy Impala와 여러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전시했고 100여 장의 관련 사진을 뉴멕시코 역사 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전시하고 있다. 미술품 전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곳에서도 보기 어려운 아메리카 원주민, 히스패닉 그리고 남서부지역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120개의 미술작품이 영구적인 컬렉션으로 장식되어 있다.



뉴멕시코의 화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미술 작품의 가치는 대략 330만 불로 본다

Tim Keller 알버커키 시장은 보도 자료에서 "Sunport공항을



2020 봄학기 한국학교 개강!! 애들아~우리 한국어배우자



2020 봄학기 안내

- 토요일 9:15 ~12:15 수업 진행
- 유치부(만4세 이상)부터 6학년까지
- 한국어권/ 영어권으로 나누어 수업진행
- 1,2교시는 정규수업, 3교시 특별활동

등록 안내

개학: 1월 25일(토)
종강: 4월 25일(토)
(+14주 중 봄방학 1회)

등록 및 기타 문의

강장 박영신
505-506-6936
nmkoreanlanguage@igmail.com

초·고학년(5학년 이상)의 경우, 전화로 등록 문의 바랍니다.

장소: 뉴멕시코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등록은

홈페이지 www.nmkorean.org에서 온라인 사전 접수, 등록비는 개학 당일날 체크 or 현금

첫째 아이 \$150.00 /사전 등록시 \$140.00
둘째 아이 \$140.00 /사전 등록시 \$130.00
셋째 아이 \$120.00 /사전 등록시 \$110.00

특별활동 및 연중행사 안내

요리교실, 전통 만들기, 독후감 쓰기, 소풍
10월 김지축제 공연 (난타, 댄스, 연극 등)
재외동포 재단 및 한국학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대회 참여, 캘리그라피 등

출입할 때마다 우리는 알버커키의 특유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Sunport는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보석 중 하나이며 이번에 발표된 기사는 우리 뉴멕시코의 문화와 역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 말했다. 공항에서 볼 수 있는 그림중 4장의 그림을 여기에 소개한다. 더 많은 자료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abqsunport.com/at-sunport/sunport-arts-program/>



뉴멕시코 소나무 2019년 미 의사당 앞의 크리스마스 트리 임무수행마쳐

매년 12월이 되면 미 국회 의사당 앞 잔디밭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는데 2019년은 뉴멕시코가 맡게 되었다. 지난 11월 6일에 “People’s Tree”로 알려진 60피트의 푸른 소나무(학명: Blue Spruce 푸른 가문비 나무)를 뉴멕시코 북쪽 Red River 인근 칼슨 국유림 산에서 잘라서 워싱턴 DC로 보냈다. 그곳까지 1,500 마일을 운반해 가는 도중에 거쳐간 25곳의 도시에서 마다 간단한 축하 행사를 했었다. 이 푸른 소나무는 11월 말에 국회 의사당에 도착해서 의사당 서편 앞 잔디에 세워졌으며 뉴멕시코 어린이들이 만들어 보낸 수공예품 Ornaments로 장식되었다.



12월 4일 수요일 저녁 낸시 펠로시 (Nancy Pelosi) 미국 하원 의장에 의해 서편 잔디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가 열렸다. 펠로시 의장은 연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보내준 매혹의 땅, 뉴멕시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키가 크고 아주 대칭적인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뉴멕시코의 어린이들이 만든 오나멘트로 장식한 것이 뉴멕시코의 다양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점등 스위치는 뉴멕시코 Arroyo Seco 초등학교 4학년 학생 Asher Dean이 켜다. 이 학생은 에세이 컨테스트에서 뽑힌 학생이다. 이 자리에서 뉴멕시코 주지사 Michelle Lujan Grisham의 연설이 있었고 뉴멕시코 상원의원 Tom Udall, Martin Heinrich 그리고 하원의원 Xochitl Torres Small, Deb Haaland 의원도 함께 했다. 50년이 넘는 전통으로 계속되어온 미국 국회 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의 금년도 연례 조명은 2020년 1월 1일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US Capitol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는 동영상으로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voiceofnm ■

뉴멕시코의 미야무라 씨 뉴욕의 VETERANS DAY 퍼레이드에 초청받아

뉴멕시코 켈럽에 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이며 무공훈장의 수상자였던 히로시 미야무라(Hiroshi “Hershey” Miyamura)씨가 뉴욕에서 열린 재향 군인의 날 퍼레이드에 한국전쟁을 대표하는 그랜드 마샬로 초대받아 다녀왔다.

2019년 뉴욕에서 베트남스데이(재향 군인의 날) 퍼레이드는 11월 11일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났던 관례에 따라 11시에 기념식으로 그랜드 마샬이 화환을 증정하고 오후 1시에



사진: 뉴욕에서 TV인터뷰 중인 미야무라 씨

퍼레이드를 시작했다.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뉴욕시의 상징적인 5번가에서 퍼레이드가 열리며 재향 군인, 봉사 단체, 고등학교 행진 밴드를 포함하여 거의 30개 주에서 온 약 300명의 행진 부대와 25,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베트남스데이 퍼레이드이다. 이날의 퍼레이드는 WABC-TV에서 온라인으로 방송되었다.

뉴욕에서 인터뷰를 통해 미야 무라 씨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대표하는 그랜드 마샬로 초대받아 영광입니다.”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겪은 전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94세인 미야 무라씨는 “나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 이 나라를 믿습니다’라는 말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이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수많은 재향 군인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2016년 뉴멕시코한인회 행사에 참석하셨던 미야무라 씨

<23페이지로 계속>

시

성탄절 아침 - 성탄절 아침

임찬순

조그만 창살 너머로
고요한 아침이 열리고
옛적 성탄의 기억
하나씩 찾아 오고 있네.

오랫만에 오신
부모님과
베글과 사과와 바나나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옛 시골교회의 풍경이며
이영지붕에서 스텝트로
변해갔던 추억의 뒤안길

첫 성탄의 기억
눈 온 시골길 걸어
추운 겨울 가르며 갔었네.
아빠 무등타고
들어간 옛 교회당
따뜻함의 온기 평화였네.

대들보 크던 큰 집
앞에 서있던 성탄트리
산에서 베어온 생 소나무에
현란한 색채로 작은 소품들
라디오도 티브이도 못 봤던
내 눈엔 요정들 날아오르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아름다움과 빛의 극치였네.

예배 후 먹은 떡국
천사가 전해준 천상의 맛이었네.
그 첫 성탄은
온 세상이 흰색으로 칠해진
하얀 성탄
소나무, 대나무 위에 핀
눈꽃들이 연출한 세상은
환상의 나라였네.

그 날의 기억은
나를 교회에 붙들어 매는
어떤 마력이었네.
그 날 정말로 내 속에
우리 예수님 오셨나 보다.
첫 성탄 그 날이
교회에 처음 간 날 되었네.

오십 중반을 넘어가는 해,
그 날처럼
창조의 날처럼
오심의 날처럼
순간마다 날마다 살자는
기도올리네.
그렇지 이 입은
매년 다시 탄생하는가 보다.

시인은 Covenant UMC-Arlington, TX 담임 목사님입니다.

문화예술대회 최우수상

한국이 통일하면...

김의련

뉴멕시코 한국학교



나는 분단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분단이 되어서 북한에 가지 못하면 북한에 사는 친구들을 못 사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 분단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예요.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어서 힘든데 만약 북한에 사신다면 보고 싶을 때 갈 수 없고 전화도 못 해서 목소리도 못 듣는다면 너무 슬플 거 같아요.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새로운 친구도 사귄 수 있고 그 친구들과 문화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북한의 공연도 볼 수 있고 우리의 BTS도 북한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놀 수 있어요. 많이 재미있을 거예요.

또 북한 백두산이나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자연도 볼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의 서울이나 제주도에 놀러 올 수 있다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북한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친구들도 있어요. 북한과 통일을 하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면 땅도 넓어지고 그 땅에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지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부자가 되고 힘도 더 세질 거예요. 또 우리와 북한을 연결하는 기차길을 만들면 그 기차를 타고 세계여행도 할 수 있어요. 기차를 타면서 서계 여행을 하면 재밌을 거 같아요.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는 지금 휴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는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해요.

통일하면 평화롭게 해야 해요. 평화롭게 통일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지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전쟁으로 통일하면 많은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전쟁하면 어느 쪽이 이길 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겨도 전쟁 때문에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도 다치고 가족들이 헤어질 수도 있어요. 전쟁이 끝나도 다시 무너진 건물을 고치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 해요.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친구랑 싸우고 다시 친해지려면 서로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해요. 대한민국과 북한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통일했으면 많이 좋겠어요. 빨리 통일을 해서 북한에도 자유롭게 여행가고 북한에 사는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한인교회소식

새해를 맞으며



김재태
라스 크루세스 한인 침례교회
담임목사

존경하는 교포여러분 저는 라스 크루세스에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김재태 목사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곳에 정착한지도 어언 6년이 다 되었습니다. 먼저 뉴멕시코에 거주하시는 우리 민족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들은 세계를 헤치며 승리의 깃발을 쫓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쫓대를 향해 달려가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함께 뭉치면서 살아가는 협력의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물고문명의 전통을 이어받아 온 민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도우면 물뎀 동산 같이 행통의 능력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민족들이여 서로 물고를 터주면서 협력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십시오. 한인회의 공동체를 위하고 한인 교회들을, 한인 사업체와 각 가정을 위해서 협력합시다. 뿐만아니라 자녀들의 출세가 미국 주류 사회에 튼 인물들이 나오도록 협력하십시오.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거듭 거듭 부락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힘과 사랑이 민족을 빛내는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대망의 새해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김재태 목사 드림 ■

하나님의 나라가 Albuquerque에 임하게 하소서!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높은 샌디아 산 정상에서 아름다운 땅 알버커키를 내려다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 아름다운 축복의 땅 알버커키 온 땅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간구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첫째 주일부터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지역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첫번째 기도제목이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알버커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서의 40일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임을 밝힙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the kingdom of God)을 말씀하시니라” (행 1:3).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마지막 구절은 사도 바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ART 전용버스 차선 규칙

알버커키 경찰은 센트랄 에비뉴(Central Avenue) 도로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ART알버커키 급행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하거나 교차하는 운전자들에게 98 개의 경고장을 발행했다. ABQ 버스 관계자는 센트랄을 따라 강화된 경찰의 순찰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운전자에게 ART 차선을 넘지않도록 하며 신호등 앞에서만 좌회전하거나 U 턴을해야하는 것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지난 한달 동안은 ART 차선위반에 대해 경찰은 경고장을 발행했지만 새해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벌금이 부과되는 티켓을 발행 한다. 알버커키 경찰은 2020년 1월 2일 목요일부터 ART 차선 위반에 대한 티켓을 끊기 시작할 것이다. 경찰은

ART 차선에서 운전하거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하는 사람은 적어도 \$ 80 티켓을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두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는 총 \$ 160의 티켓 두 장을받을 수도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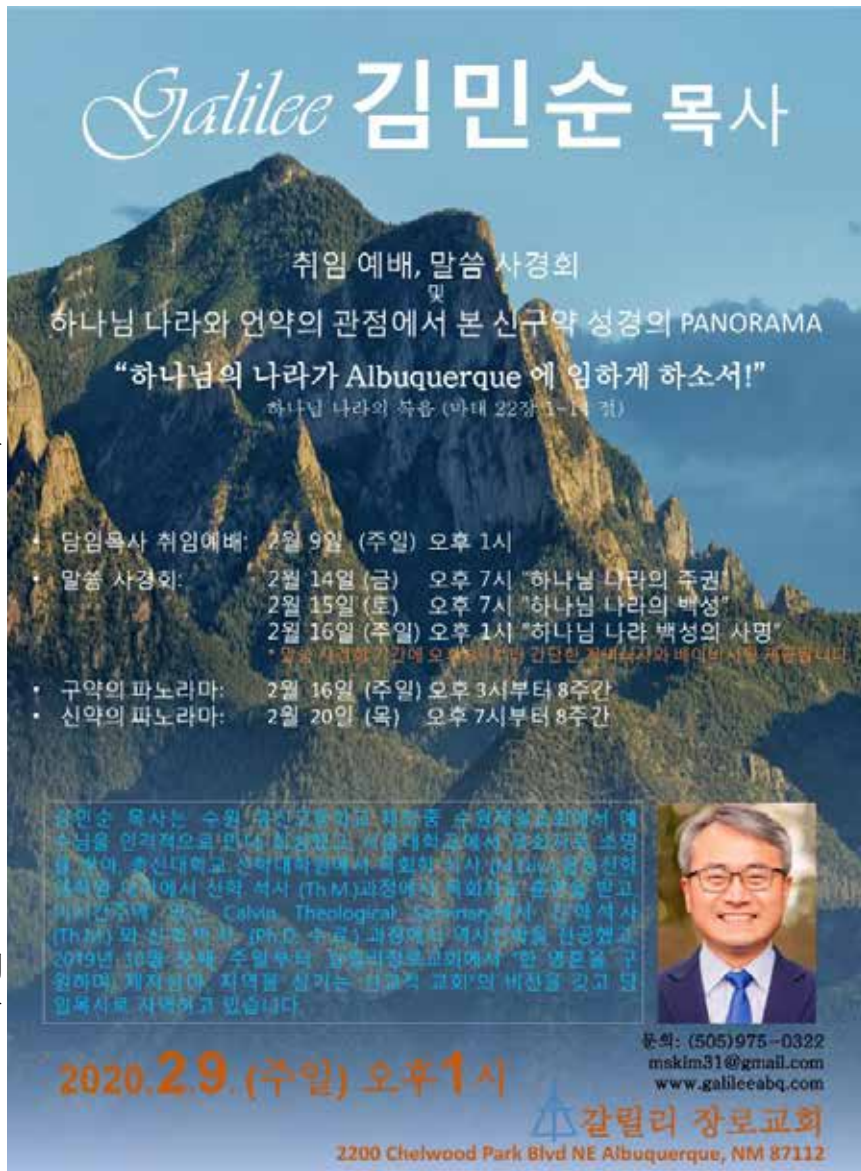
위와 같은 경우 차선 위반으로 티켓을 받을수있다.

전파에 있음을 보여주며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 28:30-31).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우리 알버커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행 1:6).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거리가 멀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자들에게 달려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차게 일해야 하는데, 지금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생각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관심에 갖게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But seek first his kingdom)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1-33).

2020년 2월 9일 (주일) 오후 1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2월 14일 (금)부터 2월 16일 (주일)에는 우리 알버커키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Albuquerque 에 임하게 하소서!”의 주제로 마태복음 22장 1-14절의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의 본문으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축복의 땅 Albuquerque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2월 16일 (주일) 오후 1시 예배 이후와 2월 20일 (목) 오후 7시부터 각각 8주간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관점으로 신 구약 성경 전체를 함께 읽으며 재미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구약과 신약의 파노라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Galilee 김민순 목사

취임 예배, 말씀 사경회
및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본 신구약 성경의 PANORAMA
“하나님의 나라가 Albuquerque 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 22장 1-14 절)

- 담임목사 취임예배: 2월 9일 (주일) 오후 1시
- 말씀 사경회: 2월 14일 (금) 오후 7시 "하나님 나라의 주권"
2월 15일 (토) 오후 7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2월 16일 (주일) 오후 1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
* 담임목사 취임예배 이후에 담임목사님 개인적인 예배와 배회하실 계획입니다.
- 구약의 파노라마: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부터 8주간
- 신약의 파노라마: 2월 20일 (목) 오후 7시부터 8주간

김민순 목사는 수원 영신대학교 재학중 수원제일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으며, 중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M.Div)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신학 석사 (Th.M.)과정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신학대학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 석사 (Th.M.)와 신약학 석사 (Ph.D. 수료)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1992년 10월 30일 주일부터 감동리장로교회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되어, 지역을 섬기는 전일적 교회”의 비전을 갖고 영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20.2.9. (주일) 오후 1시

문의: (505)975-0322
mskim31@gmail.com
www.galileeabq.com

갈릴리 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C & M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 (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수필



산책길의 경관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앨버커키는 도시 계획과는 상관없이 땅 값이 싼 교외에 주택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볼품 없이 뻗어 가는 도시다. 도심은 마치 소화되다 만 음식처럼 여기 저기 떠 있고, 구시가는 쇠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부분의 공간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며 일을 보기에 매우 불편하다. 반면에 아주 넓고 인구가 적어 한산하기 이를 데 없으며, 거대한 샌디아 산맥이 북동쪽을 감싼다. 그 산에는 240개도 넘는 오솔길이 나 있고, 시가지의 길도 널찍해서 걷거나 달리기에 알맞다. 매년 크로스컨트리 경기가 열리는 학교 앨버커키 아카데미 안에도 오솔길이 여럿 있다.

사시 장철 걷는 사람들을 보고, 더러 천천히 달리는 사람도 본다. 조용하고 신선한 분위기가 자주 내 발길을 밖으로 이끈다. 아침 낮 저녁 아무 때나 집을 나서서 한가한 기분으로 시가지들 이리저리 어슬렁거린다.

문밖을 나서서 이내 모퉁이를 돌면 첫 번째 아로요가 나타난다. 아로요는 미국의 서남부에서나 볼 수 있는 작은 수로다. 평평한 바닥과 가파른 양 측면이 모두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큰 비가 온 경우 아니고는 보통 물이 없다. 아로요 다리를 건너 걷노라면 가끔 유유히 찾길을 가로지르는 고양이 가 눈에 띈다. 저녁은 엿저녁에 쥐를 몇 마리나 잡았을까.

봄철에는 아침 일찍부터 재잘거리는 새들의 소리가 유난히 크다. 가로수나 정원수가 많아 새가 끊는 곳이라선지 이곳 라디오들은 새소리로 아침 일곱 시를 알린다. 언제 들어도 청아한 새들의 지저귀음이 내 기분을 돋운다. 마침 걷는 길에 새소리가 들어 있는 녹음기를 틀어 놓는 집도 있어서 한참을 서서 듣고 있기도 한다. 모이로 새들을 끌어들이는 줄만 알았는데... 새는 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맞다는 생각도 한다.

나이 든 사람은 흔히 개를 데리고 오후에 산책한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과 갈 곳이 있어야 하고, 병이나 사회적 장애의 방해를 받지 않는 육체도 있어야 하는 등의 산책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일까, 노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것은 보기 드물다. 젊은이들은 아기를 태운 손수레를 밀며 산책한다. 그 안에는 잠든 녀석도 있지만, 손을 흔들며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는 귀여운 녀석도 있다. 산책객 중에 사람을 못 본 체 그냥 지나치는 이는 드물다. 한결같이 미소지으면서 ‘굿모닝’ 아니면 ‘하이’ 한다. 그러다 여러 번 마주쳐 낮이 익으면 잠깐 서서 이곳의 좋은 날씨 얘기를 하는 사이가 되는 수도 있다.

동서로 뻗은 스페인가를 건너기도 한다. 주택가이지만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데, 웬지 신호등이나 일시 정지 표지판이 드문 길이다. 횡단 보도에 사람이 들어서서 걸어도 번번이 차가 멈추지 않는다. 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애들도 많이 건너는 곳. 다행히 등하교 시간에는 마틴이 정지 표지판을 들고 교통을 정리한다. 은퇴한 뒤 십여 년을 ‘건널목 안내원’이라는 큰 글씨가 박힌 노란 조끼를 입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아찔한 순간을 몇 번 보았다면서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차 없으면 살기가 불편한 곳에 교통 법규의 기본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조금 더 걸으면 큰 아로요가 나타난다. 아로요를 따라 잘 포장된 산책길로 들어서면 기분부터 달라진다. 좁은 길의 오른쪽을 택하여 걷고 있으면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하면서 자전거 탄 사람이 앞지른다. 아로요와 산책길 사이에는 선인장들이 잡초와 함께 군데군데 자라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무덥고 건조한 지대에 자생하는 선인장은 해마다 화려한 꽃을 피운다. 잡초들도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으로 사람의 눈길을 끈다. 아로요 건너편 땅에는 세이지브러시가 자생한다. 주로 미국 서부의 불모지에서 볼 수 있는 국화와 속속의 식물인데, 솔잎 모양으로 깊이 찌진 잎이 무성하며 노란색의 아름다운 꽃으로 가을을 알린다.

뉴멕시코의 광활한 땅에서 사는 다리가 길고 호리호리한 새 로드런너가 눈에 띈다. 사막과 흡사한 아카데미의 소로에서 종종걸음을 쳐 달아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는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뒷마당을 찾아 들기도 하고 생쥐를 입에 문 채 찾길을 건너기도 한다. 몇 마리가 아로요 부근에 불박아 사는 것 같다. 한 녀석이 조금 사이를 두고 나와 한 방향으로 걷다가 갑자기 선인장 밑으로 기어들더니 도마뱀을 물고 나와 삼키는 것도 보았다. 십여 년 전에는 아카데미 산책로에서 메뚜기들이 발길에 채이기도 했건만, 계속되는 가뭄이 잡풀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면서 녀석들의 먹이도 줄어든 것이 분명하다. 지구의 온난화가 가져온 생태 변화다 싶어 걱정도 든다.

산책이 흔히 만남과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혼자만의 산책은 사람을 되돌아보게 하고, 인간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준다. 삶이 나를 홀로 산책하게 만들었다. 맑은 공기, 넓은 공간, 파란 하늘 아래서 소박한 전원적 평화를 누리게 해준다. 천금을 준다 해도 앨버커키의 아침과는 바꿀 수 없다. ■

“최고의 해 2019”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요즘 들어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켜 보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년 이맘때만 되면 세월만 빨리 가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지요. 아마도 기억할 새도 없이 너무도 분주하게 한 해를 살아온 탓이 아닐까요. 그나마 남아 있는 메모나 자료들을 뒤져보면 잊고 지냈던 올 한해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감리교회는 연말이 되면 매년 한 번씩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Charge Conference)”라는 것을 합니다. 이 모임에서 한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지요. 구역회에서 담임목사는 교인 명부를 정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보고서에는 교회를 떠나 타 교단으로 간 사람, 이사 간 사람, 장기 결석한 사람, 사망한 사람 등의 숫자를 적어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2019년에 위와 같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모두 21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인 수는 167명으로 보고가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 오기도 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고로 많은 교인 수를 보고한 올 한 해였습니다. 출석만 아니라 재정도 많아져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거의 125퍼센트 증가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올해는 교회 역사상 최고로 풍성한 재정을 보고했던 한 해가 된 것이지요. 종합해보면 올 2019년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의 해”였습니다.

이런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뒷면에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들의 수고가 씨앗들이 되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림으로 올해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된 것이지요. 씨앗들을 보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등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묵묵하게 일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의 씨앗,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과 성가를 부르는 찬양대의 헌신의 씨앗, 예배 때마다 안내와 기도 등 예배 순서에 맡은 바 충성을 다했던 교우의 헌신의 씨앗, 교구와 속회를 맡아 인도했던 장로님, 속장님, 인도자들의 헌신의 씨앗, 주일 예배 후 친교시간에 식사 대접하는 교우들과 여성교회의 헌신의 씨앗, 예배 후에도 늦게까지 교회사무실에서 사무정리를 하는 봉사위원들의 헌신의 씨앗, 매일 새벽마다 교우,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교인들의 기도의 씨앗들이 올해의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예배 때마다 심지어 새벽 예배에도 영어 통

역을 하고 있는 통역교인들의 헌신의 씨앗은 우리교회가 여러 인종, 다양한 교단 출신 교인이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새해 문턱에서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또 변화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자는 말입니다.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자는 표어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보기 싫게 변질되는 것도 있지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닮아 따듯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고집만 내세우면 추하게 변질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강박한 사람”이라고 책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름답고 멋있게 변화된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가지만 딱딱하고 추하게 변질된 사람은 피합니다. 변질되었다는 것은 썩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썩은 것들은 냄새를 피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썩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아름답게 변화되고 잘 익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매 순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겠지요. 신앙 생활이란 곧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생활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교우들과 지역 교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교우들 뿐 아니라 뉴멕시코에 사는 모든 교민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이 함께 하여서 2020년은 여러 분들의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단순한 것을 깊게 감사하는 것의 중요성



한승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University of New Mexico
전도사/Computer Scientist

북버지니아에 있는 과학 고등학교 Thomas Jefferson High School for Science & Technology 는 입학 당시인 1990년 고등학교로는 세계 유일로 ETA10이란 슈퍼컴퓨터와 여러 가지 최신 컴퓨터 기기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SuperQuest 란 대회와 여러 연방 및 국제 과학 및 수학대회에서 매년 연속으로 일등을 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압도적으로 60%가 넘게 많은 동양인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동양 학생들만 있었고 나머지는 대다수 백인 학생들뿐이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독학으로 종이에 그려가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던 저에게는 컴퓨터를 매일 직접 다룰 수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일단 매우 신나는 입학 합격이었습니다. 후에 들어가서도 매일 방과 후 컴퓨터 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컴퓨터 팀의 캡틴으로 활약하면서 여러 대회에 나가 상을 타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인공지능이 학계에서 깊이 있게 연구되기 전에 이미 인공지능에 대한 논리를 고등학생으로서 정리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금은 특별한 몇 년의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가깝게 지냈던 한인 친구들과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게 되었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과 친분을 맺게 되며 두 가지의 정신적 세계를 목격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고성과자(high performer)들은 왜 고성과자들인지에 대한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다재다능하고 총명한 학생들이긴 했지만 기이할 정도로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몇몇뿐이었고 그런 소수의 학생들과 가까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 특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Justin 이란 신입생인데 이미 대학원 수준의 수학을 통달하고 머릿속에 엄두도 못낼 정도의 어려운 공식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쉬지 않고 연결해 나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매일 점심을 먹으며 그가 스스로 기억력을 돕기 위해 만든 다채로운 단어들에 같이 깔깔 웃으며 세상에서 제일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저와 같이 퍼즐로 맞추며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는 분명 수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수업을 택하며 많은 양의 숙제로 내준 문제들을 푸는 것도 그에게는 즐거운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친구 Tom 이란 친구는 학업 중 그룹 숙제 때문에 집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라하게 느껴졌던 작은 집의 거실 한복판에는 거대한 체스판과 말들이 놓여있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체스 게임이었습니다. 상대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가면서 보고 돌아가면서 한 수 식 놓고 하며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진행되는 부자간의 체스 게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게임을 하였냐고 궁금해 물으니 아주 어릴 때부터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체스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보통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숙제와 프로젝트들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 한편에는 항상 아버지와 두고 있는 복잡한 체스판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단순한 오락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Tom이 가지고 있던 재능들이 어떻게 발달 될 수 있었는지 순식간 직감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중학교 때 알고 지냈던 한인 친구들과는 가끔 같이 모이게 되면 어느 친구 집에 모여 같이 콘솔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콘솔 게임은 TV에 연결해 사용하는 기기였습니다. 그때 콘솔 게임 열풍으로 유행했던 것은 Street Fighter 라는 게임으로서 하나의 가상 싸움꾼이 되어 다른 싸움꾼과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 싸우는 게임이었습니다. 복잡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순서로 버튼들을 적절한 시간에 맞춰 누르기만 하면 세계 최강의 싸움꾼이 되어 가상의 꿈을 실현해주는 게임이었습니다. 한 번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돌아가면서 상대하며 하루 종일 놀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인 친구들의 입에 자주 언급되었던 영웅은 시라소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일제 시대때 골목길 싸움을 제일 잘했다는 신화적인 인물 이성순의 일본어 이름입니다. 친구들이 한국 영화에서 보고 반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런 싸우는 게임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같이 놀고 나면, 제가 보통 지는 처지이어서 그랬는지 항상 시간을 낭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나며 저는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로서 학교 밖의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고 한국에서 유입돼 들어오는 유희문화에 점증적으로 더 깊이 빠져가는 한인 친구들과는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는 인터넷이 널리 공공으로 유포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한인 친구들이 즐겨했던 오락의 형태나 지금 크게 유행하고 있는 오락의 형태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의 삼차원적 공간 인지도와 함께 복잡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고 적절한 백 분의 일초의 시간에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면 무언가

<20페이지로 계속>

영어 이야기 (6)



이상목

전직 교수

아마추어무선사(K7MOK)

“한글은 쓰여진대로 읽는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더불어 우리가 한글을 자랑할때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글자 하나 하나를 읽을때에는 거의 쓰여진대로 읽히지만, 한국어로서 하나의 단어로 쓰일 경우,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춤법이 안그래도 어려운데, 자꾸 바뀌는 통에 더 어려워 졌고 띄어쓰기와 더불어, 한글자체는 익히기 쉽지만, 우리말(한글이 아니라)은 사실 어려운 언어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향의 봄”은 대부분 “고향에 봄”으로 발음하며, “나의 살던 고향”은 “나에 살던 고향”으로 소리내며 노래부릅니다. 문체로 쓰인 “나의 고향은”, 물론 대화할시엔 “내 고향은”으로 말하죠. 동요 정세문곡의 이원수요인 “고향”은 “♪고~향 고향 내고향 박꽃피는~ 내 고~향♪”으로 시작되는데, “나의 고향”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격인 “의”를 써야 할곳에 발음을 “에”로 많이하다 보니 글로 표현할때, “에”로 잘못 표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광야의 소리”기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상”으로 써야 할것을 발음하는데로 “우리에 기상”이라고 글로 쓰는 사람이 많은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영어에도 있는데, your와 you’re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영어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소유격인 your와 you are의 준말인 you’re가 발음은 비슷하나 엄연히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않은 수의 미국인들이 you’re를 사용할곳에 your를 사용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습니다(“You’re welcome,”도 “Your welcome.”으로 잘못 쓰여져 있음을 가끔 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your”와 “you’re”를 풍자한 만화를 보면, 낚시를 같이 간 친구가 “Your good at fishing.”(넌, 낚시를 잘하는구나) 하자, “You’re good at fishing.”으로 정정해 주면서, your는 소유격으로 “your fish”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 하자, “your fish”를 “You’re fish.”로 알아듣고 “I’m not a fish.” 하자, “What I mean is that’s your fish.”(내말은 네(너의) 물고기란 얘기야). 필자가 대학에 몸담고 있었을때, 전공이 전자공학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제출하는 리포트에, you’re를 써야 할곳에 your를 사용하면 점수를 깎았습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졸업전 senior project나, 직장에서 회의를 하거나 프로젝트(project)를 제출할때 말이나 글쓰는 능력이 대화능력(communication skill)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앞날이 탄탄합니다.

얼마전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수학책 내용과

문제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말에 존재하는 “사이시옷”이 요즈음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시절, 국어시간에 “소리나는대로 적으시오.”라는 문제를 많이대했습니다. “무력무력”은 “무령무력”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해님”대신에 “햇님” (헨님으로 발음)에 존재하는 사이시옷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치과(齒科)는 치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간 치과가 옳바른 철자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석유값을 나타내는 유가(油價)는 “유까”로 발음되는데도, 윗가로 쓰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이시옷” 사용은 예전 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차함수에 나오는 꼭지점, 최소값, 최대값을 모두 “꼭짓점, 최솟값, 최댓값”으로 사이시옷을 사용하여 표기하였는데, 이것이 맞춤법에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대치는 최댓치가 아닙니다. 또한 “최대값”으로 이미 썸소리가 나던것이, 사이시옷(ㅅ)을 사용한 최댓값으로 쓰고 발음하다보니 쓸데없이 힘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기와장도 기와짱으로 발음되니 기와장으로 표기하고, 등교길도 등교길로 발음되니 등곳길로 철자하고, 만두국(만두죽)도 만듯국으로 철자하는것이 요즈음의 표준맞춤법입니다.

한글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남다른 애로가 있을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사건), 효과(효과)를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은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아, “사건”, “효과”가 아닌 “사건, 효과”로 발음하여 듣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음의 앞뒤 구성에 따라 음운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너무 복잡하게 다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층은 윗층으로 쓰면 틀린다 하니, 갈피잡기 힘듭니다. 문맥에 따라 발음이 자연스럽게 변하니, 차라리 사이시옷을 쓰지말고 읽을때만 구별하면 되지않나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변수가 있어 사이시옷은 골치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촛불을 초벌로 철자하고 초빨로 읽자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해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말과 일대일로 비교할순 없지만, 영어도 경우에 따라 같은 글자가 여러가지로 발음되고 있음을 볼수있습니다. 글자 “t” 발음을 보면(특히 미국영어에서), time(타임), trip(추립), party(파리), Rita(리다), country(칸츄리)에서 “t”의 발음이 제각각입니다.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많은데, 썸타웨 대신에 Santa Fe(쌌나 웨이)로, Santa Claus는 썸나 클러스로 흔히 발음합니다. 미국은 개척시대에 스페인과 프랑스의 영향으로 인해, 지명(place name)을 읽는것이 제각각입니다. 원음대로 읽어주는 곳도

치과 이야기 (7)

충치 치료와 예방법



윤자정
Los Lunas Smile
NAPA Family Dentistry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연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충치 치료와 예방법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충치는 치아의 표면에 프라그와 박테리아가 쌓이고, 치아가 청결하지 않은 경우 및 미네랄이 부족하여 치아부식으로 인해 이빨이 썩어서 안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충치 신호와 증상을 가능한 빨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를 빨리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의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충치가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 시린 치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 차거나, 달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괜찮다가 갑자기 찌르는 듯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

- 씹을 때 고통이 느껴진다

- 치아에 까맣게 패이거나 구멍이 난 부분이 있다

- 어떤 충치는 눈에 잘 안 보이고,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충치는 엑스레이나 밝은 조명 아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과에 정기적으로 꼭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손상된 경우는 절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치아의 썩은 부위가 안으로 파고들어 신경까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은 물론 자연치아 발치까지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충치치료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첫번째 아말감 합금 성분은 은 65% 주석 29%, 구리 6%, 아연 2% 수은 3% 로 이루어진 혼합물입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하고 수명이 길며 오랜 사용으로 임상에서 효용이 입증되었습니다.
- 두번째로 래진은 유기질 고분자와 무기질 충전제로 구성된 혼합물질로 치아색과 닮아서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접착력이 우수한 편이나 마모에 저항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하여 힘을 많이 받는 곳과 손상이 넓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 금인레이의 경우 아말감보다 부식이나 변색이 없어 생체 친화적입니다. 자연치와 균형있는 강도로 제작할 수 있어 씹는 힘으로 잘 깨지거나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치아 손상이 넓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심미성이 떨어져 눈에 잘 안 보이는 어금니에 주로 사용합니다.
- 도색 인레이 경우 색상을 거의 치아와 같이 재현할 수 있어 심미적으로 우수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금에 비교하면 깨질 가능성이 크기에 어금니 부위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치치료의 재료 선택은 환자의 구강 상태나 충치된 부분의 크기, 심미적인 문제, 비용 등이 좌우 될 수 있기에 충분한 상담과 진단 후 치료를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영어 이야기 <18 Page에서 계속>

있고, 영어화(anglicized)된 지명도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아름다운 Mackinac(매키너) island는 프랑스어로서, 발음도 하지 않는 'c'가 단어 끝에 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영국인들이 Mackinaw(매키너)로 고쳤는데 (Mackinaw city, Mackinaw bridge 등), 섬 이름만은 Mackinac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Michigan주에 놀러갈 기회가 있다면, Mackinaw시에서 배를 타고, Mackinac섬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섬에는 예전에 군대가 주둔했던 Fort Mackinac가 있는데, 그곳의 역사와 더불어, 내려다 보이는 호수의 전경은 참으로 평화스럽고 엽서같은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5대호 (Great Lakes)의 미시간(Michigan)호와 휴론(Huron)호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Mackinaw다리를 건너 캐나다와의 접경지역에 있는 Sault Ste. Marie는 "쑤세인 머리"로 발음합니다. 불어로는 "쑤 세트 마리"로 읽습니다. 이곳은 5

대호중 제일 큰 호수인 수피리어(Superior)호와 휴론호가 만나는 지역인데, St. Mary's river라고 불리는 수로로 연결되어 있고, 수피리어호와 휴론호의 물높이가 같지 않아 (21 ft (6.4 m) 차이가 남) 굉장히 빠른속도로 흐릅니다. "Sault"는 떨어지다(fall) 또는 물살이 세게 내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Sault(불어발음은 "쑤")는 영어화되어 "쑤"로 발음하기 때문에 "Soo"로 철자하기도 하는데, 물높이 때문에 양쪽호수로 선박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Lock를 만들었는데 "Sault Lock"대신에 "Soo Lock"로 철자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Lock"는 자물쇠란 뜻도 있지만, 물높이를 같이하는 장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배가 한쪽에 들어서면 앞뒤를 문으로 막은다음, 물높이를 같게 맞춘다음 다른쪽 호수로 나가게 합니다. "Sault"에 해당되는 영어는 "cataract(캐터랙트)"인데, 큰 폭포처럼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떨어지는 강(江)의 구간을 말합니다. 또한 cataract는 눈병의 일종인 백내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sault(쑤)는 sauté(쑤우테이)와

단순한것을 깊게 감사하는것의 중요성<17 Page에서 계속>

이겼다는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섭게 날아오는 공을 쳐주는 테니스 선수의 운동신경 향상을 위한 반복적 훈련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이 한 방향에서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공이 한꺼번에 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요즈음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부대에서도 같은 오락의 형태를 총 쏠 때의 감각과 공간 인지 감의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공간 인지 감을 키우는데 가장 최적화된 오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아이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들은 엄청난 감각 자극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중독성은 매우 잦은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노력의 결과란 것은 꾸준하고 지속된 노력 후에 찾아오는 반면 가상 세계에서는 불과 몇 분 동안의 정신적 집중이란 노력으로 상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긴 노력 후에 얻어지는 지속형 친밀감이란 보상보다는 잠깐 모여 팀원으로서 한 가지 단순한 목적 달성을 위해 모였다가 순식간 해체되는 치고 빠지는 용병 군인들의 정신 같은 세계입니다. 분 단위로 성립되는 가상 인간관계에 익숙해지면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최근 MIT Technology Review에서 "Video games are dividing South Korea"란 제목의 기사로 한국의 게임 중독을 두고 나누어진 견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과 한인 학생들이 얼마나 컴퓨터 오락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기본적인 본분에 성과를 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e-sport 라 하여 어떤 정당한 스포츠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의 어릴때 부터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아 왔던 고성과자(high-performer)들의 특징은 단순한 것을 깊이 즐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키워왔지요? 반면 한인 부모들 사이에 많이 들은 말 중 아이에게 많은 장난감을 사주어야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 방이 짝 찰 정도로 장난감과 인형을 사둔 부모들도 목격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나 인형을 직접 사준 적은 한 두 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탕같이 단것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허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단순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진가를 알아보기도 전에 감각을 너무 자극시켜 버리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놀 것도 먹을 것도 없을 때 그러한 절제는 자연스럽게 쉬웠겠지만 지금 도가 넘도록 모든 것이 넘치는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불가피했던 선택이었습니다.

2016년에 "왜 나는 스마트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TED Talk에 나와 강의한 Ann Makosinski 이란 18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 소녀"로 이미 유명세를 탄 소녀입니다. 인도 빈민촌에 밤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 책을 읽고 공부하기가 힘들어진 어린아이들을 보고 사람 손에 있는 열을 전류로 전환시키는 손전등을 발명했던 것입니다. 대 기업에서도 개발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기술을 어떻게 십 대 소녀가 가능케 하였을까요? 그녀의 부모는 유별나게 장난감이나 인형 같은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종이, 판지 상자와 접착제를 주어 자신이 가지고 놀 것을 만들게 하였고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Ann 은 모든 어린 아이들의 자신과 같이 놀이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때 이미 Ann 은 전기기구들을 남떨질하며 분해 및 조립하고 있었고 십 대에 들어서는 독창적인 자신의 것을 발명하는 발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전화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스마트 전화기보다는 구식 플립 폰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했습니다. Ann Makosinski 는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한 것을 깊게 감사하고 즐기며 적용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가능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단순하고 작고 좋은 것 하나라도 깊이 있게 오래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줘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

Michael Han

2019-12-26

영어 이야기 <19 Page에서 계속>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쉐볼레 기름을 친 후라이팬에 감자나 채소류등을 넣고 빨리 튀기는 요리를 "sauté"라고 합니다. 식당메뉴에 sautéed potatoes는 이런식으로 요리한 것인데, 후라이팬 손잡이를 잡고 공중으로 올렸다 받으면서 요리하기 때문에, 요리가 jump또는 fall하는것 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발레(Ballet)할때 두발로 같이 뛰어올라 같은자리에 내리는 동작도 "sauté(쏘우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명어는 불어와 스페인어와 영어가 뒤범벅이 되어, 그 마을 사람들이 발음하는대로 부릅니다. Arizona 주의 Tucson(투산)도 그렇고, 아이오와(Iowa)주의 수도인

Des Moines는 "디모인"으로 발음하지만, Illinois(일리노이)주에 있는 Des Plaines는 "데스플레인즈"로 읽습니다. 심지어 같은 이름도 달리 부르는 지명도 있는데, 뉴욕의 Amherst는 "앰허스트"로,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의 Amherst는 "애머스트"로 "h"를 발음 안합니다. 하기사 공식어(official language)가 없는 미국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조건없는 사랑’



김광철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내가 어렸을 때 가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세상에는 완전한 공짜는 없다.”는 말을 기억한다. 무엇이든지 거저 받을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얘기다.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는 뜻이다. 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조건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을 뜻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 약 두 달 동안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여행목적은 지난 3년 동안 계속했던 공동연구를 마무리 짓고 동시에 의과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 이번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작년 에티오피아 선교 때에도 했듯이 미래에 의사로서 일하게 될 학생들에게 의사가 되는 것은 창조자가 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동시에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활한 마음과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환자들 사역을 예로 들면서 조건 없는 사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얘기하고 동시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뜻을 얘기해주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순수 경험했던 조건없는 사랑의 한 예를 나누려고 한다.

미국에 온 지 8년이 되던 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국립건강연구소에서의 첫 번째 포닥 (박사학위를 마친 후 교수가 되기 위해서 3-5년 동안 추가로 하는 임시 연구직) 연구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곳 호흡기질병 연구소의 소장의 초청/도움으로 두 번째 포닥을 하게 되었다. 내게 주어진 연구는 이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막 개발한 시스템 (토끼의 기관지 세포배양)을 이용하여 여기서 분비되는 뮤신 (mucin) (가래를 끈적끈적 하게 하는 물질) 의 조절을 연구하는 약리학적 테마였다. 뇌의 세포를 배양하여 호르몬의 분비를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던 나에게는 비교적 수월하고 흥미진진한 연구과제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내가 받은 연구과제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6개월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세포 배양조건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배양조건을 개발한 후에야만 연구과제를 다시 시작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눈앞이 캄캄했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은 했지만 연구하려는 뮤신의 분석 방법 또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약리학 연구를 하려면 우선 뮤신을 새로이 분석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야만 했었다. 뮤신은 우리 생체에서 가장 분자량이 큰 당단백질로서 연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당시는 물론 지금도 모르는 게 많다. 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또다시 앞이 캄캄했었다.

바로 이때쯤 내가 일하는 실험실에 Jim 이라는 젊은 미국사람이 4년동안의 포닥을 마치고 선임연구원 (신임 조교수 격) 으로

일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의 전공은 당단백질이였다. Jim 은 지극히 검소하고 정직한 기독교인으로 점심때면 거의 언제나 아내가 싸주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즐겁게 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화끝에는 항상 “I love you, Daisy”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는 혼자서 웃곤 했었다. Jim 은 뮤신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내가 실험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거의 언제든지 즉시로 나를 도와주었다. 나 때문에 자기 실험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집에 갈 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는 매일 8시 반이면 시작하여 5시 반이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었다). 반면에 나는 밤을 새워가면 실험을 해야 할 때가 많았다. 하루는 오늘도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저녁을 자기 집에서 간단히 하자고 해서 연구소 근방에 사는 Jim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상상 외로 초라한 집이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검소”한 집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따뜻하게 대해 주는 아내와 한 살 된 아들이 있었고 처음이었지만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그 아내가 준비한 meat loaf를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난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욕심 없이 자기 일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예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했다. 이름난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일하는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경쟁심이 심하고 이기적인 생활을 하는 게 보통이다. 특히 Jim과 같은 특출한 학력과 경험을 가진 연구원은 100% 가 절대로 나를 위해 자기들의 귀한 시간을 공짜로 소비하지 않는다. 연구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씩 하는 연구 결과 보고 때 Jim의 상관인 그룹 리더로 부터 실험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Jim에게 주의를 주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때로는 자기 실험은 제쳐놓고 내 실험을 도와주었던 Jim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약 1년 반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 결과로 기관지 세포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뮤신을 나오게 하는 세포배양조건과 동시에 뮤신의 구조를 처음으로 구명하게 되었다. 1년후에는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생화학학회잡지에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보스턴대학 의과대학에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좋은 조건으로 나에게 조교수 자리를 주었고 결국에는 나의 33년 동안의 미국 의과대학에서의 교수 생활의 기반이 되었다. 내기 연구소를 떠날 때 마지막 2년 동안 했던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 열심히 슬라이드를 만들 당시에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다) Jim 은 헌신적으로 나를 도와주었다. 모든면에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변명하기도 않고, 말없이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Jim의 모습을 보고 말할 수

하나님의 선교사 재배치 사역



이성일

Mission Together 대표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선교단체나 교단에서는 “전략적인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선교사를 가능하면 미전도지역으로 파송하곤 했다. 물론 전략적인 선교사 배치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들이 선교사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다만 선교사들이 가고 싶은 대로 보냈으며 또 후원교회가 보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나 지역에 선교사들이 과도하게 편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인 재배치를 강행하다보니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1986년도에 설립된 바울선교회에서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7가정을 “전략적인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미전도 지역으로 재배치했다. 한도수 선교사는 이들 7가정 중 4가정을 인터뷰한 내용을 옮겨 보았다: “재배치는 이제 전략이 아니다. 이것은 전략 오류의 산물이고 회개해야 할 일이다. ... 개인적으로 이러한 단어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다” (K 선교사-요르단). “꼭 선교사를 재배치하여야 할 경우라면 가능한 한 같은 언어권 그리고 비슷한 문화권으로 보내게 되면 선교사에게도 언어를 배우는 시간과 문화를 적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본부에서도 그로 인한 경비를 낭비하지 않고 선교사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사역에 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H 선교사-세르비아). “미전도 종족과 회교권이 우선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하지만 복음화율이 적은 가톨릭 권에도 파송이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H 선교사-멕시코) “첫 번째 선교지 필리핀 이후 두 번째 선교지 나이지리아에서의 저의 사역의 효율성과 효과는 더욱 좋은 편이라 생각된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 훈련 사역이 현지의 필요와 중요성에 비추어서 아주 좋은 반응과 효과가 있어왔다고 본다” (L 선교사-나이지리아). (한도수, “전략적인 선교사 배치 전략.” http://kcm.kr/dic_view.php?nid=40977)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사 재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교단체나 교단의 선교부에서 권면의 단계를 넘어서서 강압적으로 재배치하는 인위적인 단계가 아니라, 각 민족이나 국가의 선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전제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전 세계가 UN 2030 Agenda가 이끄는 대로 One World Government, One World Economy, One World Religion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방문했던 말레이시아는 이슬람화 정책으로 동말레이시아의 경우 기독교 인구가 90%에서 30%으로 급감하고 있었다. 인도는 힌두교를 국가종교화하려는 방향으로, 네팔은 2018년 8월에 개종금지법안을 발효하여 기독교 선교를 강력 제한하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한다. 어떤 지역은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선교사를 추방한다. 특별히 인도와 중국에서 그렇다. 이 일로 인하여 선교사들은 하던 모든 사역을 정리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추방당하고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여 공황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움도 갖는다.

한 국가나 정부가 강제로 선교사 철수를 진행하시는 일과 관

련하여,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서도 “여기 예루살렘이 종사오니”하는 마음으로 선민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에 붙들려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를 통해 온 세상에 흩어서 사도행전 1:8의 성취를 이루셨다. 흩어진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드디어는 안디옥으로 흩어져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도행전 8:4에서 박해를 피하여 도망치던 그들은 자발적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그들을 흠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비자발적이던 그들이 자발적으로 두루 다니는 전도자가 된 것이다. 선교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전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처럼, 정부의 선교사 강제 출국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019년 11월 9일 토요일 저녁에 네팔 지역교회를 방문한 후, 호텔에 돌아 왔을 때 카투만두 서쪽에서 사역하는 최동욱 선교사 부부와 청도에서 비자발적으로 출국한 000 선교사를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 공안에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선교사들까지 추방하고 있으며 거의 3분의 2가 추방당하였다고 한다. 각 교단 선교부(GMS 등)에도 철수할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예전에 허락을 받은 재외 한국인 교회의 경우도 교파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교회만 지정된 도시에 허락을 한다고 한다.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지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미국인 사역자를 통해서 최근에 체포된 미국인선교사의 소식을 들었으며, 전에 출국 조치된 한인 선교사가 몇 년이 지나 국경을 통해 가다가 박도그라 공항에서 체포되어 거의 한달동안 구금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렇게 선교사 강제철수나 개종금지법안을 통과시켜 선교현지 정부가 목적하는 바도 있지만,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선교사 입장이나 현지 정부 입장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선교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일까?

1) 현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선교사를 의지했던 것들을 끊어 내심으로 그들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뜻은 아닐까? 그들의 눈을 선교사에서 주님 자신에게로 옮겨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히12:2)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다.

2)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Rice Christians과 Genuine Christians들이 용광로 속에서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

신비한 도자기 그릇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도자기 하면 먼저 고려자기가 떠올립니다. 고려자기를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독창적이고 우수한 재능을 가졌었는지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기술이 그대로 잠만 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 좀 비꼬면서 “도자기가 도자기 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야단이지 “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비한 도자기 그릇이라고 부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신비한 도자기를 만들려고 거의 10여 년 동안 많은 노력과 정열을 쏟아부어 주신 분께 감축드립니다.

우선 신비한 도자기 그릇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서론부터 차근 차근히 설명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19세기에 전자파 (Electromagnetic wave , 또는 횡파) 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 본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냈습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자외선 (Ultra violet ray) 193nm~ 400nm, 가시 광선 (visible ray) 400nm~650nm, 적외선 (Infrared ray) 700nm~20micrometer) 등으로 구분되고 적외선은 Near IR, Mid IR, Far IR 로 구분됩니다.

이 신비한 도자기 그릇을 개발해 낸 분은 한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광물질 중에서 Microwave oven 안이나 Range 에서 여러 광물질을 데우거나 끓일 때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는

광물질을 선별해서 그런 물질로 도자기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자를 Regular oven에서 한 시간 구어야 되는 것을 이 신비한 도자기 그릇 안에 넣고 Microwave oven 안에 넣어서 5분 정도 구어 내면 Regular oven에서 한 시간 정도 구어 낸 것처럼 잘 구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16 micrometer에서 발열하는 여러 광물질을 조합해서 1350도 C 정도에서 구워서 만든 자기 그릇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잘 부서지지도 않아서 식당에서 사용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점심시간이 30분 밖에 없는 고객들 약 20명이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면 큰 냄비에다 왕창 국을 끓여 놓던가 아니면 이 도자기 그릇에 담고 빨리 끓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 왜 세월이 그렇게 빠르니 모르겠다고 하지요. 벽에 걸린 시계는 가끔 고장이 나지만 세월의 시계는 절대로 고장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Rush Rush 하는 분들에게 이 그릇이 유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도자기 그릇이 미국 시장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LA, Denver, Dallas에 있는 한 아름 슈퍼 마켓에 이 도자기 그릇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어디도 그런 도자기 그릇을 파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도자기 그릇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직접 사 와야 합니다. ■

뉴멕시코의 미야무라 씨 <11페이지에서 계속>

지금까지 미야 무라는 께럽에서 여생을 살고 있다. 그곳의 거리 이름, 공원과 고등학교 이름이 그의 명예로운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다. 그는 젊은 후세를 위해 애국심, 미국역사, 신앙에 관해 학생들과 지역 사회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연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었다. 그는 이런 일을 사명으로 여긴 점을 그가 했던 말에서 볼 수 있다. “60 세가되었을 때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약 30년전에 미야무라씨가 했던 말이다.

세계 1위의 미디어 그룹 넷플릭스(Netflix)에서는 미국 역사상 전쟁에서 공을 세워 최고의 명예훈장을 받은 8명의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8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2018년에 출시했다. 미야 무라의 이야기는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소개되고 있다. 일본계 미국 배우 Derek Mio가 배역을 맡았다.

(편집자 주: 광야의소리 2016년 7/8월호에 나온 “한국전 참전용사 히로시H미야무라는 어떤 인물인가?” 기사에서 상세한 소개를 볼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

<http://voice.kumcabq.com/2016-0708/2016-0708-p09.html>)

(참고기사 : 알버커키 저널, “NM hero to be a grand marshal at NYC parade” Thursday, November 7th, 2019) ■



미야무라 하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정보는 포로교환으로 귀환하기 전까지는 극비에 부쳐졌다고 한다.

조건없는 사랑 <21페이지에서계속>

없는 감사와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날에는 소장님께서 많은 연구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연구결과를 칭찬하면서 마치 진흙 구렁이에 빠진 마차를 힘들게 꺼내어 이제는 평지를 달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박수로 축하를 해주셨다. 세미나를 마친후, Jim은 내게 와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나를 축하해 주었다. 물론 세미나의 결론으로 이 과제를 끝내는 데는 Jim의 힘이 컸고 Jim이 없었으면 과제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청중 앞에서 깊이 감사를 표했다.

그 후 6년 후 메릴랜드대학에서 일하고 있을때 소장님의 초청으로 연구소에 세미나를 하러 갔을 때 Jim을 볼 수 없었다. 비서를 통하여 들은 바에 의하면 5년 계약이 연기되지 못하여 미주리주에 있는 조그마한 정형외과 대학교로 직장을 얻어서 갔다고 들었다.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을 했다. Jim의 목소리를 듣고 말할 수 없이 기뻐다. 지극히 평안한 목소리로 자랑스럽게 자기 가족 소식을 알려주고는 나의 연구논문들을 계속 보고 있다면서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 생각하니 Jim은 그 당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미 세사적인 것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후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다보니 몇 년이 흘렀고 나의 연구가 비교적 절정에 도달하여 외부에서 세미나 강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때 Jim을 초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었다. 안타깝게도, 옛 주소로는 연락이 안 되고 학교에 연락했는데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다. 직접 그곳까지 찾아가서 행방을 알아볼까도 생각해 보았다. 마음이 아팠다. 그 때 더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서 만났어야 했었는데...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로 시간을 미루다 보면 더 중요한 일, 특히 되돌이킬 수 없는 인간관계를 영원히 놓칠 때가 있다. 결코 “우연”이란 없다고 믿는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나에게 수많은 “우연”이 있었고 때로는 “우연”이 나의 행로를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행로를 바꾸어 주기도 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를 세밀한 계획하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인도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 주님의 목적이 있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라는 창조자의 음성을 듣는다. 나이가 들어가니 점점 몸이 약해지고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둘 활동력을 잃던지 심지어는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나에게 새로운 오늘이 있고 아직도 나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부터는 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봉사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하지만, 서투른 봉사활동은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목적이 분명하고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의 준비가 된 후에 확고한 계획하에 이루어 질 때 진정한 봉사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할 때 만이 기독교의 향기가 잔물결처럼 널리 널리 퍼져나가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하나님의 선교사 재배치 사역 <22페이지에서계속>

는 뜻은 아닐까?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에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시는” (마13:48)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걱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

3) 자생적인 선교사역을 통하여 성경에 기초하고 자신들의 문화에 뿌리를 내린 토착적인 건강한 교회와 살아있는 예배가 경험하게 하시려는 뜻은 아닐까?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숫자는 미미하다. 그러나 쿠란에서 예수를 이사라고 하는데,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사를 부르다가 이사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다. 이들은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났다는 많은 간증서들은 이를 증거하고 있다. 이들을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점에서 나는 이슬람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유사 기독교 그룹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 토착적인 전도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뜻은 아닐까? 선교사가 전도방법까지 가르치다보니 현지인 전도자들은 생소한 전도방법을 배우다가 지치게 된다. 사실 현지인들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네트워크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전도내용만 알면 스스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은 선교사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로버트 모리슨이 1807년 청나라 시대에 마카오에 도착함으로써 근대 중국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렸었다.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 시작된 중국선교는 왕명도, 손상지, 워치만 니 등의 토착적인 복음전도자를 통해 성장을 경험하다가 모택동이 이끄는 문화혁명기를 거치게 된다. 이때 어떤 통계를 보니 세례 입교인이 69만 9천정도였다. 그리고 얼마간의 핍박기간을 거쳐 1990년대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외치며 “죽의 장막”(Bamboo curtain)이 걷혔을 때, 중국의 1990년 공식통계상 삼자교회는 목사: 1,050명, 세례교인: 5백50만명, 교회당: 6,000개, 그리고 신학교: 13개였다. 아마도 그때 가정교회는 5000만 정도라고 추산된다 (<http://kcm.co.kr/mission~/China/>). 물론 30년이 지난 현재는 비공식통계로 삼자교회는 적어도 1000만, 가정교회는 8-9000만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입을 모은다.

다시 중국에서 반복되고, 인도에서 진행되는 선교사의 강제 추방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나 베트남으로 재배치되고, 또 네팔로 몰려 들어 최근 3-4년 동안 선교사 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 모든 일이 선교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그 분은 어떤 일로 인도와 중국, 또는 다른 지역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을 사용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선교사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추방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김용의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선교지에서 돌아오게 된 선교사들을 ‘새 전략군’으로 명명하고 한국교회가 이들이 새롭게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마음 깊이 공감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터가 흔들린 채 이 땅으로 돌아온 선교사들로 다양한 현장경험과 믿음의 삶을 살아온 증인”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재배치하실 것인지, 그 과정을 거쳐야 할 선교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한다 (2019/12/31)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일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미국장로교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Albuquerque)

이명길목사 (505)717-2590(Church), (505)730-3614(hand)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영어예배(1부): 오전 9: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1:00(사택)13804 Spirit Trail Pl.NE ABQ
 목요기도회: 오후 7:00(교회에서)
 주일예배처: 7th-day Adventist Church, 4920 Wyoming NE, Albuquerque, NM 87111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p>알버커키 Albuquerque</p>	<p>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p>	<p>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 식품점 Korean Grocery -----</p>	<p>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p>
<p>건축/페인트 Painting</p>	<p>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p>	<p>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Ste D ABQ (505)766-9405</p>	<p>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p>	<p>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p>
<p>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p>	<p>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p>	<p>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p>	<p>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p>
<p>공인회계사 CPA</p>	<p>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p>	<p>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p>	<p>----- 월셋방 Room for Rent -----</p>	<p>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p>
<p>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p>	<p>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p>	<p>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ABQ(505-883-3618)</p>	<p>셋방(1) (침대 Furnished) 여자에 한함 위치: Eubank+Paseo del Norte \$500-600 Utility포함 연락처:(505)410-9653</p>	<p>----- 자동차정비 Auto Repair -----</p>
<p>교회 Church</p>	<p>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p>	<p>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ABQ (505-345-0960)</p>	<p>----- 의류 Clothes -----</p>	<p>-----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p>
<p>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p>	<p>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p>	<p>----- 주택용자 Loan Officer -----</p>
<p>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p>	<p>부동산 Realtors</p>	<p>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p>	<p>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p>	<p>-----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p>
<p>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p>	<p>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p>	<p>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p>	<p>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p>	<p>----- 중재서비스 -----</p>
<p>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p>	<p>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p>	<p>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p>	<p>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 3420)</p>	<p>-----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p>
<p>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4920 Wyoming NE ABQ (505-717-2590)</p>	<p>사진관 Photo</p>	<p>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p>	<p>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p>	<p>----- 컴퓨터 서비스 -----</p>
<p>단요가 Dahn Yoga</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p>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p>	<p>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p>	<p>----- SH Consulting(이성희) 505-933-9004 Remote/Onsite Computer Support. -----</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틀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세탁소 Dry Cleaners</p>	<p>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p>	<p>-----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p>	<p>----- 치과 Dental Clinic -----</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p>	<p>----- 식당 Korean Restaurant -----</p>	<p>----- ----- -----</p>	<p>-----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p>
<p>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p>	<p>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p>	<p>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p>	<p>----- ----- -----</p>	<p>-----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p>
<p>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p>			<p>----- ----- -----</p>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
662-9681)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식당
Chinese Restaurant**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e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e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0년 1/2월호
발행일 : 2020.1.4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
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야의 소리 출판 비용은 광고주와 애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총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뭉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엘버카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크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Korean BBQ

& Sushi
 Hours
 Monday-Thursday
 11:30am-2:30pm
 5:00pm-9:30pm
 Friday-Saturday
 11:30am-10:00pm
 Sunday Closed
 4214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8
 phone (505) 797-8000
www.abqsushiandsake.com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